

파키스탄 - 세번수 면사의 수출을 적극 추진

파키스탄은 그 동안 20수를 비롯한 태번수 면사를 홍콩, 중국 시장에 수출해 왔는데, 이들 시장이 신형 폐렴(SARS)의 확산에 의한 화난으로 인하여 정체국면을 맞고 있다. 요즘의 상황을 보면 파키스탄 면사 20수의 오퍼(offer)값은 상급품이 한 곤(梱)에 335불 내외가 되는데, 홍콩 시장에서는 이 가격으로 중간 상인이나 수요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여 별로 거래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크게 번져 나갈 듯하던 SARS가 진정되어, 파키스탄 면방업계는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번수 면사가 이들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자, 파키스탄은 세번수 면사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파키스탄의 여러 곳에 공장이 있는 강력한 기업의 하나로서 25만추를 보유하고 있는 사파이어·그룹(Sapphire group)은 이 회사의 제 3공장에서 미국의 피마면으로 뽑은 제직용사 및 니트용사로서 60수, 80수를 금년(2003년) 5월부터 일본으로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그룹은 일본에서 이들 세번수의 판매루트를 특정 기업으로 제한하여 시행차원에서 판매하고 있다.

사파이어·그룹은 방적공장을 핵심으로 하고, 산하에 환편공장과 직포공장을 두고 있으며, 봉제공장은 튀니지(Tunisia), 남미(南美)에 있어,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장마다 고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독자적인 개성화를 도모하며, 세번수 실이나 셀룰로스 등의 복합섬유제품의 공장 배치로 “다양한 니즈(needs)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에서 말한 제 3공장은 면방 40,896추 규모로서, 그 중에 콤팩트방기도 포함되어 있는 “파인·카운트(fine-count 細番手) 전문공장”으로서 연말까지 15,000추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세번수 면사, 콤팩트 면사 및 콤팩트사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파이어공장이 5월에 일본으로 처음 수출한 60수, 80수 면사의 품질은 “인도에서 생산되는 세번수용 원면으로 뽑은 실에 지지 않는 자신 있는 상품”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 실은 미국의 피마면을 사용하였으며 슬럽이나 넵이 적고 품질이 균일한 면사로 일본의 수요자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이 면사는 일본에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하여 특정 수요자에 한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콤팩트사는 아직 상품으로서 개발과정에 있지만 머지 않아 주력상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